

세계지리 평가가 학생들의 지역 편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기남* · 성정원**

The Effect of World Geography Evaluation on the Formation of Students' Regional Prejudice

Ki-nam Kim* · Jeong-won Seong**

요약 : 세계지리 과목은 지역 지리를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과목이지만 현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부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지역 지리 내용이 평가 요소로 활용될 때 경제적 위계관계의 틀로 지역을 조망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세계지리 대입수능능력시험(이하 수능) 문항을 사례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세계지리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세계지리 수능시험에 응시한 학생과 미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지리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이 인지적 영역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세계지리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세계지리 과목에 높은 흥미를 보였으나, 세계지리 수능이 세계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킨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세계지리 평가는 아프리카에 대한 구조화된 편견을 심화시켰다.

주요어 : 세계지리 평가, 아프리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구조화된 편견

Abstract : World Geography is a subject that provides balanced information about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However, the current curriculum and textbooks require some critical review in this regard. Particularly, when regional geography content is used as an evaluation factor, it is likely to intensify prejudice against certain regions by viewing them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hierarch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orld Geography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tems on high school students' prejudice against Africa. As a research method,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students who had taken the world geography class, targeting both those who took and did not take the World Geography CSAT,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students who took the World Geography CSAT displayed higher levels of prejudice against Africa in the cognitive domain. Secondly, students who took the World Geography CSAT demonstrated a greater interest in and higher expectations for Africa in terms of the affective domain. Thirdly, students showe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subject of world geography. However, they responded that the world geography test did not offer a fair and balanced representation of the world and instead reinforced prejudice against Africa. In conclusion, the World Geography evaluation has shown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tructured prejudice against Africa.

Key Words : World geography evaluation, Africa,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tructured prejud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ygnusg@hanmail.net)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Teacher,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seonwoodady@korea.kr)

I. 서론

BBC 다큐멘터리 휴먼 플래닛 4부 ‘정글’편(Jungles- People of the Trees)에서는 파푸아뉴기니 정글에 사는 코로와이(korowai)족을 다루었다.¹⁾ 이들은 특이하게도 30m 이상 높이의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내어 놀라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후 BBC는 이 장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²⁾ 사실의 왜곡은 밝혀졌지만, BBC는 왜 사실을 왜곡했고, 사람들은 왜 의심 없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다. 사실 코로와이족의 특이한 주거 방식은 이전에도 여러 서구 언론을 통해 비춰져 왔다. 방송을 거칠수록 코로와이족 전통가옥의 높이는 더 높아졌고, 마침내 30미터 이상 나무의 수관층에 이르렀다. 국내 한 예능에서는 이를 45m 높이의 전통가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코로와이족의 그러한 삶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현대 서구인들의 인식에 존재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전형 혹은 편견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시각이 현대적 맥락에서 아프리카에 투영되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과 다른 아프리카의 모습이 서구인들의 시각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Mudimbe, 1988; Mazrui, 2005). Aji(2020)는 컴퓨터 게임에 비춰진 열대지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했다. 열대기후지역의 가상공간에는 검은 피부의 원시적 생활양식을 지닌 캐릭터가 등장하고 동양의 여성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졌으며, 온대기후 지역의 가상공간에는 백인의 부유한 여성이 등장한다. 이는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구중심의 시각이 게임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서구적 편견이 담긴 시각의 투영은 코로와이족의 전통가옥을 아파트 10층 높이 또는 그 이상의 나무꼭대기까지 오르게 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는 미디어가 원시 부족에 대한 상상력을 과장하여 지역적 편견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이해해 보자. 하지만, 교육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적 편견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김기남·김민성(2021)은 세계지리 수능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자연지리 내용에서 인문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나타나는지 분

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이재(2021)는 국가 주도의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 구성을 지적하였다. 그 외 다수의 연구들이 지리 교육과정 속 지역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박선미·우선영, 2009; 조성욱, 2018; 김정숙·박선미, 2022).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식의 필요성은 최근까지도 학교 교육 과정 내의 중요한 이슈이며, 최근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이러한 문제 인식은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과목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편견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아프리카 대륙을 사례 지역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지역적 편견의 형태와 문제점, 그리고 설문 분석을 위한 질문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와 수능 문항 분석을 통해 세계지리를 수강한 학생 중 세계지리 수능에 응시한 학생과 미응시한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의미한 논의를 끌어내어 향후 세계지리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을 기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낼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지역 인식과 편견

구글(google) 포털 검색어에 부유한(rich)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도시 경관을 배경으로 백인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검색이 되고, 빈곤(poor)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흑인과 열대 또는 건조기후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검색이 된다.³⁾ 구글과 같이 답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 검색 시스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⁴⁾ 국내외 대형 포털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털 검색 시스템이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편견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구조에 기반하는 이상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결국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야, 보다 균형적인 포털의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역설에 이른다.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정보 혹은 의외의 정보들이 말하는 가치들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을 보면, 열대에서 냉대 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큰 자연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뜨거운 대륙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그 외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서식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20명 이상이며, 아프리카는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아시아 다음으로 많은 대륙이고, 도시 인구가 앵글로아메리카의 총 인구보다 많으며, 2011년 재스민 혁명을 통해 스스로 민주화의 첫걸음 내딛었다는 점 등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정보들이다(김명주, 2012). 또한, 농업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닌 동부아프리카 일부를 제외하면 아프리카에는 촌락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많고(김기남·김민성, 2021), 북아프리카 인종 중에는 코카서스계 백인의 구성 비율이 높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검은 대륙'에 불과하다.

중종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정보는 더 쉽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편견을 가중시킨다. 2016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다. 사실상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아 등 몇 개 국가에서 발발하여 퍼져나간 바이러스였음에도 전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을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⁵⁾ 아프리카가 하나의 국가라는 세계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Doh, 2009). 언론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기술하면서 구체적인 국가 명은 제시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언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에볼라 괴담'으로 인해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두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⁶⁾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편견의 시각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Doh(2009)는 미국 미디어에서 부각된 아프리카의 이런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공교육 시스템, 발달한 로컬 은행, 체계적인 조세제도 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국제기구의 지원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아프리카의 편견을 만들어내는 요인의 상당부분이 아프리카의 외부에 있으며 아프리카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적 편견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사회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테러와 관련하여 인식되는 무슬림이고, 그다음은 흑인이다(Abrams and Houston, 2006). 사실상 흑인이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과도 비슷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범죄 관련 보도가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우창완·우형진, 2014). 하지만, 이주노동자들과 주요 거주 지역의 범죄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주자들에 대한 예민한 시각이 그들의 일탈적 행동을 과장하여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흑인 역시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2. '세계지리'와 편견

세계지리 과목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대해 보다 균형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을 내용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차별적인 과목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은 현재 이러한 과목의 독특한 성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선미·우선영, 2009; 김소순·조철기, 2010; 김기남·김민성, 2021; 김이재, 2021). 특히, 세계지리 교과 내용이 평가 요소로 활용될 때 학생들이 가지게 될 편견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장의선, 2010; 김민성, 2013; 김기남·김민성, 2021).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박선미·우선영(2009)은 7차 교육과정 기반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및 서구 선진국은 높은 비중으로 다루었고, 소위 '제3세계' 국가로 일컬어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낮은 비중으로 다루었으며 게다가 부정적 시각이 투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동남 및 남부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지역들이 가난하고 잦은 분쟁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었고 이는 서구중심주의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이재, 2021). 하지만, 이들 지역의 부정적 현상들의 근원에는 소위 '선진국'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김정숙·박선미, 2022).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분쟁과 난민 문제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점령 과정의 산물이며 그로 인한 내전과 분쟁이 원인임에도(이신화 등, 2015), 단지 해당 지역이 분쟁과 난민

문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은 주로 이러한 난민과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역할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상 난민 문제만 하더라도 세계 난민의 80% 이상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분포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김정숙·박선미, 2022).

우리나라에게 아프리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륙이다(조성욱, 2018). 이런 낯섬은 쉽게 오해와 편견을 조장한다. 교과서에도 그러한 오해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다수 존재한다. 세계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르완다는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학살과 난민 발생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⁶⁾ 하지만, 르완다 대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는 현재의 르완다를 이해하는 데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르완다는 화해와 통합 그리고 경제 발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김민성, 2013).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내용은 교과서에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분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은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르완다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는 지금 현실의 아프리카와 너무 다르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아프리카를 다룬 우리 교과서 또한 과거의 아프리카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다루고 있다(조성욱, 2018; 김기남·김민성, 2021).

세계지리 과목은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적 전통이 혼합된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세계지리 과목 내용 구성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계통지리적 이슈를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지리를 배우는 학생들의 사고의 틀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인식하게 한다(전중환, 2015). 여기에 익숙한 대륙과 낯선 대륙의 조직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룰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다(조성욱, 2022). 하지만, 이러한 대륙 중심의 지역지리 패러다임이 가진 한계가 있으며, 아프리카와 같은 소외된 지역을 다룰 때 다소 문제시될 수 있는 의문이 제기된다. Frenkel(1992)은 환경결정론 지리학 전통이 과거 파나마 지역을 다룰 때, 서구 제국주의의 우생학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식민지 점령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활용되었던 사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지역적 편견에 지리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혔다. 이처럼, 고정적인 지역 인식은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Moore(2008)는 국가와 같은 고정적인 지역 스케일의 인식이 지리적 사고력의 긍정적인 면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와 대륙의 기준이 모호함과 동시에(전중환, 2015), 경계와 장소의 고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은 현대 사회를 맞이하는 지리교육의 측면에서 여러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김기남, 2020).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동남 및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을 대륙 단위의 고정적 스케일로 다룰 경우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게 될 부정적 인식에 따른 불이익이 클 수 있다. 이에 Freng *et al.* (2022)은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2차원 매핑 전략을 제시하였고, Kim and Ryu(2014)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소외된 국가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의 대안적 방법들이 제시된 바 있다. 지리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 다른 지역에 대해 편견을 감소시키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학문이다(Valentine, 2008). 지리교육을 통해 그러한 만남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은, 아프리카와 같은 낯선 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세계지리 수능 문항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아프리카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고 수능을 선택한 집단과 선택하지 않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세계 지리 수능 시험에 대한 인식과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세계지리 수능을 응시한 학생과 응시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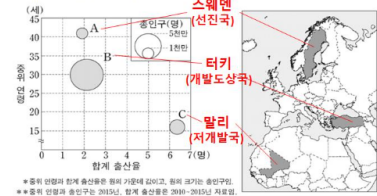
세계지리 수능 문항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응답한 학생들 중 '세계지리를 수강하고 수능을 치른 학년 학생'과 '세계지리

를 수강했지만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했으며 분석 대상인 학생들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 절차 및 설문 도구

세계지리 수능 문항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표 2와 같이 진행하였다. 각 영역은 순서대로 진행하되 영역 내 질문은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진행하는 데는 약 2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수능 및 2차 지필고사가 끝난 시점에 세계지리 수업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의 일환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림 1과 같이 세계지리 수능 문항 중 아프리카의 기후, 자연환경, 생활 모습, 인구와 관련된 각각의 대표 문항 4개를 김민성·김기남(2021)을 참고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주요 개념을 파악하여 단답형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본 내용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수능 문항의 형식과 내용을,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수능 문항에서 지역을 다루는 내용과 흐름을 상기시키도록 사고의 과정을

<문항 3>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높은 출생률로 인해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② B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 ③ C는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난다.
- ④ A에서는 인구 과잉 문제가, C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 ⑤ C는 B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그림 1. 본 설문 전 제시된 아프리카를 다루는 수능 문항

고려한 구성이었다.

다음으로 편견을 측정하는 인지적 영역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영역의 설문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고(Katz et al., 1975; 박선미·우선영, 2009; 김기남·김민성, 2021; 김이재, 2021), 세계지리 수능 문항의 내용 특성을 분석하여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1'은 '아니다'~'5'는 '그렇다')로 제시하였고 각 질문은 모두 '5'가 가장 편견이 높고 '1'이 편견이 가장 낮은 응답이 되도록 제작되었다(일부 문항은 긍정적 정보로 제작되어 응답 수치를 역으로 산정함). 인지적 영역의

표 1. 연구 대상

구분	세계지리 수능 응시	세계지리 수능 미응시	계
집단별 인원수	33	42	33
성별	남	14	14
	여	19	19
학년	3	13	36
	2	0	29

표 2. 연구 절차

순서	연구 절차	내용
1	설문 조사 실시 (2022.12.5.~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를 다루는 수능 문항 확인(4문항) ■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영역 측정 문항(20문항) ■ 아프리카에 대한 정의적 영역 측정 문항(6문항) ■ 세계지리 수능 시험 문항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5문항) ■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5문항)
2	유의성 검증(t-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영역 측정 결과 분석
3	문항별 응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영역 측정 결과 분석 ■ 세계지리 수능 시험 문항 / 과목에 대한 인식 측정 결과 분석
4	텍스트 마이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리 수능 시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유 서술 분석

모든 설문 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실 관계들은 통계 검증과 팩트 체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도적으로 문항 자체가 편견의 내용을 표현하도록 구성하여 편견 성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석 전 설문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R의 'Cronbach α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6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번 문항은 제거 후 신뢰도 계수가 .66으로 높아졌으며,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질문을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인 기후/환경, 도시/인구, 산업/경제, 제도/문화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5개의 질문을 배치하였으며 표 3과 같다. 내용 분류는 어떤 요소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은 편견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정의적 영역의 질문은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정원(2020)의 지리교과 정의적 성과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6문항을 제시하였으며 표 4와 같다. 질

표 3.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영역 측정 문항

번호	질문 내용	내용 주제	비고
1	고학력 인구의 유출이 심각할 것이다.	도시/인구	
2	공간적 불균형에 따른 지역 격차가 클 것이다.	도시/인구	
3	과도한 자원 개발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경제	
4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	기후/환경	
5	대도시 인구 과밀로 인한 여러 도시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도시/인구	
6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을 것이다.	도시/인구	R
7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 것이다.	제도/문화	R
8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을 것이다.	제도/문화	
9	실업률이 높을 것이다.	산업/경제	
10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 많을 것이다.	기후/환경	R
11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도시/인구	
12	열대기후 지역으로 인간이 거주하기 불리할 것이다.	기후/환경	
13	원시적(전통적)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제도/문화	
14	이동식(화전)농업과 목축업의 생계 수단 활용 비율이 높을 것이다.	기후/환경	
15	자급자족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산업/경제	
16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불안이 클 것이다.	제도/문화	
17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이 기대된다.	산업/경제	R
18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제도/문화	
19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클 것이다.	산업/경제	R
20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것이다.	기후/환경	삭제

* 'R'이 표시된 문항은 긍정형 문항으로 응답을 역으로 보정하여 통계에 적용함.

표 4. 아프리카에 대한 정의적 영역 측정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다.
2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활동에 관심이 있다.
3	아프리카에서 산다면 행복할 것이다.
4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6	미래(30년후) 아프리카의 발전이 기대된다.

문지 구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인지적 영역의 문항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81로 높게 나타나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질문에 이어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세계지리 과목의 지역 편향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표 5와 같다. 자유기술형 질문을 제외하고 응답 구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인지적 영역의 문항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세계지리 수능 문항의 구조와 세계지리 과목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질문을 중복해서 배치하였다. 이는 수능 세계지리와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인지적 영역 분석 결과

아프리카 편견에 대한 인지적 영역 응답의 평균 차이

를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인지적 영역의 경우 ‘응시 집단’ 33명, ‘미응시 집단’ 42명을 대상으로 인지적 편견 측정 설문 문항이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단 영역별로 학생이 응답한 개별 질문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본수(N)는 설문 응답 인원수에 응답한 설문 문항을 곱하여 나타난 결과다. 분석 도구는 ‘R(4.2.2.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편견은 수능 응시 집단이 수능 미응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8.83, p<0.01$).

그림 2의 박스에 해당하는 사분위수 범위에서 모집단 분포를 보면 ‘응시 집단’과 ‘미응시 집단’의 분포가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의 차이도 함께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지리 수능 응시가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의 형성에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의 주제별로 집단 차이의 평균 값을 비교해 봤을 때, 기후/환경, 도시/인구, 산업/경제, 제도/문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제도·문화 영역의 차이가 0.7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식민 지배로 인한 민주화 발달, 원시적 문화, 전쟁과 분쟁에 따른 불안 등의 요인에 학생들이

표 5.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세계지리 과목의 지역 편향성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구분	번호	질문 내용	비고
수능 세계지리 시험 문항에 대한 평가	1	사례로 제시된 수능 문항은 아프리카를 어떤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술
	2	세계지리 문항은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	세계지리 문항은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4	세계지리 문항은 세계(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5	세계지리 문항은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평가	1	세계지리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까?	
	2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재미있게 공부한 내용이 수능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까?	
	3	세계지리 과목은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4	세계지리 과목을 통해 아프리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5	세계지리 과목은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표 6. 인지적 영역 결과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 test		t	p-value
				F	p-value		
세계지리 수능 응시	627	3.51	1.09	1,348	0,246	8,83	< 2,2e-16
세계지리 수능 미응시	798	2.94	1.22				

* 개별 문항 반응을 하나의 n수로 설정하여 N은 인원×문항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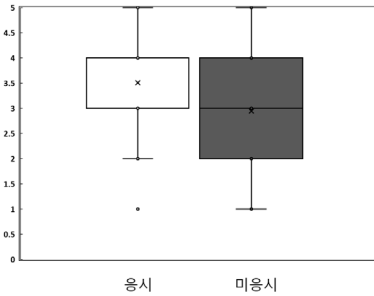


그림 2. 인지적 영역 집단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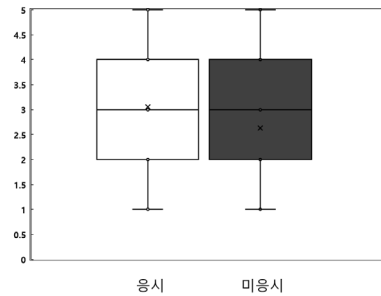


그림 4. 정의적 영역 집단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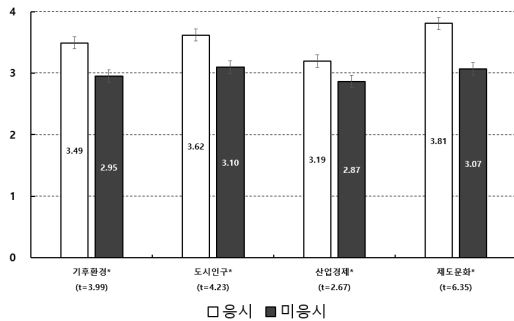


그림 3. 인지적 영역의 주제별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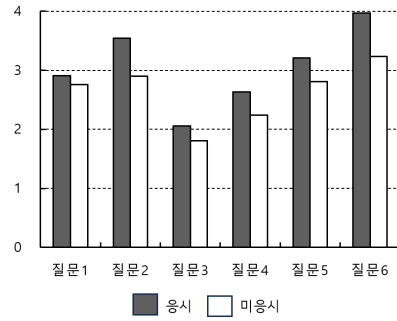


그림 5. 정의적 영역 질문별 응답 결과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단,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원인이나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의적 영역 분석 결과

정의적 영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차이를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집단 구분과 집단별 인원은 앞에 제시한 것과 같다. 단 정의적 영역 질문의 수가 6개 이므로 인지적 영역의 분석결과와 보다 표본 수는 적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응답에서 집단 간 차이는 수능 ‘응시 집단’이 ‘미응시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t=3.70, p<0.01$).

그림 4를 보면 박스의 사분위 범위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평균의 차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 평균의 분포가 사분위 중간에서 위 아래로 달리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의 질문별 반응은 그림 5와 같다. 총 6개 질문 모두 세계지리 수능 응시 집단이 미응시 집단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특히 편차가 큰 문항을 보면, 2번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활동에 관심이 있다.’, 5번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6번 ‘미래(30년 후) 아프리카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지리교과의 정의적 특성인 세계 시민성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영역의 중요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성정원·김주후, 2016), 세계 지리 학습과 수능 선택이 세계

표 7. 정의적 영역 결과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 test		t	p-value
				F	p-value		
응시	198	3.06	1.21	2.728	.099	3.70	0.0002
미응시	252	2.63	1.23				

* 개별 문항 반응을 하나의 n수로 설정하여 N은 인원×문항수 값임.

시민성과 미지에 세계에 대한 호기심 형성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수능을 선택한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인지적으로는 높은 편견을 보였고,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 기대, 돕고자 하는 마음 등의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능 세계지리 과목의 구조화된 편견이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의 편견을 높이는 하였지만,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접하도록 함으로써 정의적 측면에서의 관심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세계지리 과목의 학습과 수능을 통해 다른 지역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편견을 적게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Valentine, 2008).

3. 수능 세계지리와 세계지리 과목의 지역 편향성

세계지리 수능을 응시한 학생과 미응시한 학생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전반적으로 세계지리 과목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1번 문항 '세계지리를 재미있게 공부했습니까?'의 응답은 높게 나타났지만, 3번 '세계지리 과목은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번 '세계지리 과목은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계지리 과목과 세계지리 평가문항에 대해 '세계지리 문항은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와 '세계지리 문항은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는 공통 질문으로 그림 7과 같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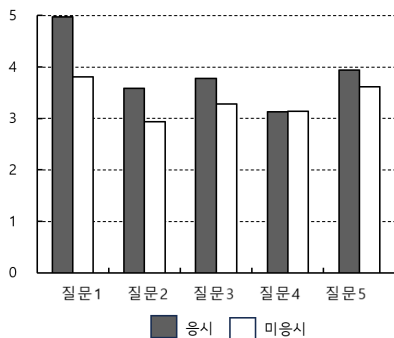


그림 6.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은 세계지리 교과가 세계지리 수능 문항보다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지리 수능 문항과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세계지리 과목에 대해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지리 수능시험과 세계지리 수업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지리 과목보다 세계지리 수능 평가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응답을 보였다는 점은 수능 세계지리 문항에 나타난 구조화된 편견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능 세계지리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유 기술 형식으로 물었던 문항에 대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에서 형태소 분석기 'RHINO 1.4.5'를 활용하여 유효한 명사만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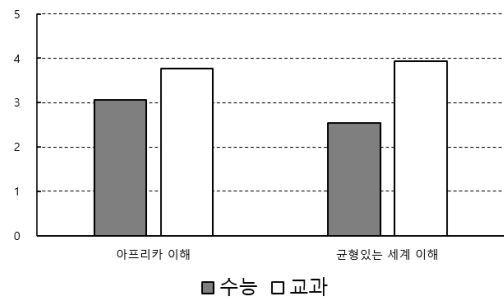


그림 7. 세계지리 수능과 교과에 대한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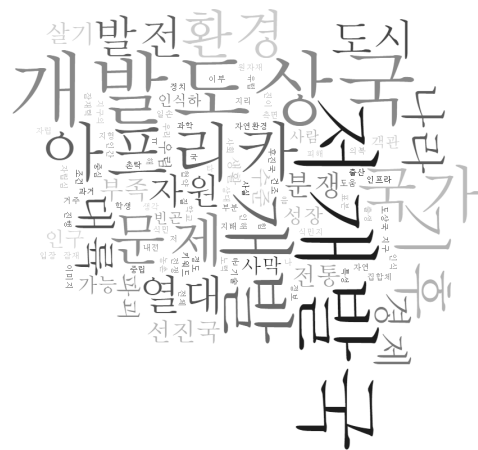


그림 8.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워드 클라우드

출하였다. 의미 없는 단어는 삭제하고, 개도국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인 개발도상국으로 변환하여 정리한 단어들을 'Voyant Tools'를 활용하여 빈도수가 많은 100개의 단어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하였다. 그림을 보면 학생들이 수능 문항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부정적인 단어들 많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어 별로 '열대', '전통', '저개발국', '분쟁', '문제' 등의 단어들은 세계지리 교과 내용을 통해 기후에서 문화, 정치, 경제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편견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Mudimbe(1988)의 아프리카에 대한 현대 사회의 서구 중심적 시각이 수능 세계지리 평가 문항에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절의 정량적 분석 결과와 함께 보면, 이는 수능 세계지리 평가 문항이 아프리카를 편향되게 묘사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에 영향을 받아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지리 수능 문항이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세계지리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세계지리 수능에 응시한 학생과 미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영역에서는 세계지리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 미응시한 학생들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더 높았으며 특히, 세계지리 수능을 치른 집단은 수능 문항을 통해 구조적으로 아프리카의 기후와 환경, 도시와 인구, 문화에 대한 편견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서는 세계 지리 수능을 치른 학생 집단이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 집단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크게 나타났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계지리 수능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문항이 구조화된 편견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높였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정의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기대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세계지리 과목과 수능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세계지리 과목보다 세계지리 수능 문항이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세계를 균형 있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능 문항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등 부정적인 용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능 세계지리 평가 문항이 아프리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학생들이 세계지리 과목을 배우면 가보지 못한 지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Valentine, 2008).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세계지리 과목은 여러 지역 또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망하는 구조적 체계가 있었고, 수능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편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지금은 세계지리 과목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2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의 명칭이 '세계시민과 지리'로 결정되었다. 교육과정 첫 번째 단락에 "지구촌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 (중략) ...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 ... (중략) ... 세계 시민성을 함양한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교육부, 2022:129). Marshall(2009)은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위한 교육과정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Biddulph(2014)는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의적 차원에서 지리교육적 관점의 중요성을 말했다. 지리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새롭게 개발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명에서 강조하는 세계시민에 적합한 지리 교육과정과 평가를 조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시각을 경제적 위계관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모습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리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위계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2 교육과정 지리교육 내용이 정의에 기반한 흥미로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안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후 연구들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지리교육을 통해 열린 시각으로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리 수업을 꿈꿔본다.

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註

1) BBC, <https://www.bbc.co.uk/programmes/b00rrd83>
 2) BBC, <https://www.bbc.com/news/uk-43649469>
 3) 2022년 11월 22일 검색 결과
 4) 시사인, 2021년 11월 4일자 “나는 인간이 아니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이다.”
 5) <https://www.sv.uio.no/sai/english/research/projects/overheating/news/2016/stereotyping-africa.html> (2016년 오슬로 대학 홈페이지 컬럼 글, 2022년 12월 29일 검색)
 6)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17473>
 7) 2015 교육과정 교과서 4종 모두(미래엔(173~175), 비상(182), 금성(172), 천재(182))에서 다루고 있음.

김정숙·박선미, 2022.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4), 47-63.
 박선미·우선영, 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 제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 48(4), 19-34.
 성정원·김주후, 2016, “지리교과 정의적 특성 선정을 위한 델파이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9(3), 23-40.
 성정원, 2020, “지리교과의 정의적 성과 측정도구 개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충완·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다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185-227.
 이신화·박홍순·서창록·박재영, 2015,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서울: 도서출판 오름.
 장의선, 2010, “세계지리의 다문화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2), 185-201.
 전중환, 2015, “세계지리에서 권역 단원의 조직 방안과 필수 내용요소의 탐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92-205.
 조성욱, 2018,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를 위한 지리 교육과정 구성 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73-87.
 조성욱, 2022, “지리교육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주제 추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4), 31-45.
 Aji, A. P., 2020, From Scorching Desert to Tropical Paradise: New Form of Video Game Orientalism in Far Cry 3, *Journal Media dan Komunikasi Indonesia*, 2(1), 73-87.
 Abrams, D., and Houston, D. M., 2006, *Equality, diversity and prejudice in Britain: results from the 2005 national survey: report for the cabinet office equalities review October 2006*, University of Kent.
 Biddulph, M., 2014, What kind of curriculum do we really want? *Teaching Geography*, 39(1), 6-9.
 Doh, E., 2009, *Stereotyping Africa. Surprising Answers to Surprising Questions*, Bamenda, African Books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2022-23호, 별책 7.
 김기남, 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지리 교육과정 구성-영토와 경계의 관계론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73-87.
 김기남·김민성, 2021, “세계지리 시험 문항이 추동하는 지역 편견의 문제와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119-132.
 김명주, 2012, 「백인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말하지 말라」, 서울: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김소순·조철기, 2010,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이태올로기 및 편견 분석: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단원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8(3), 87-112.
 김이재, 2021,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 -국가주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서구중

- Collective.
- Frenkel, S., 1992, Geography, Empire, and Environmental Determinism, *Geographical Review*, 82(2), 143-153.
- Freng, S., Schweitzer, K., Estrada-Reynolds, V., Leki, E., and Choi, S., 2022, Geographic distribution of prejudice toward African Americans: Applying the two-dimensional mode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2(2), 262-279.
- Katz, P. A., Shon, M., and Zalk, S. R., 1975, Perceptual concomitants of racial attitudes in urban grad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2), 135-144.
- Kim, M., and Ryu, J., 2014, Listening to others' voices (LOV) project: An empowering strategy incorporating marginalized perspectives, *Journal of Geography*, 113(6), 247-256.
- Marshall, H., 2009, Educating the European citizen in the global age: engaging with the post-national and identify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1(2), 247-267.
- Mazrui, A. A., 2005, The re-invention of africa: Edward said, V. Y. mudimbe, and beyond.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6(3), 68-82.
- Moore, A., 2008, Rethinking scale as a geographical category: From analysis to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2), 203-225.
- Mudimbe, V., 1988, *The Invention of Africa : Gnosis, Philosophy, and the Order of Knowled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Valentine, G, 2008, Living with difference: reflections on geographies of encounter,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3), 323-337.
- 교신 : 성정원,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3,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이메일: seonwoodady@korea.kr)
- Correspondence: Jeongwon-Seong, 16227, 263 Changryong-da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Email: seonwoodady@korea.kr)

투고접수일: 2023년 3월 1일

심사완료일: 202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16일